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2~4, 8~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호소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츠키를 석방하라

5면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이 드러낸 것 14면
조국혁신당의
약진과 모순 15면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예고
16면



바이든을 거ن장하는
미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6~7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심화되는 제국주의의 위기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관련 기사 8~9면



키프로스에서 가자 해상 구호 통로로? 바이든의 잇단 사기극

식량을 낙하산으로 공중 투하한 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해상 구호 통로를 구축해 가자지구를 휩쓸고 있는 기근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3월 8일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 키프로스, 영국, 아랍에미리트는 키프로스의 라르나카와 가자지구를 잇는 “인도주의적 회랑”을 구축하겠다는 공동 성명(아말테이아 구상)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가자지구에 임시 부두를 건설해 식량, 물, 의약품, 임시 보호시설을 운반하는 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바이든의 계획은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대한 뻔뻔한 모욕이다.

임시 부두 건설에 2개월 이상 걸릴 것이고, 해상 수송이 트럭을 이용한 육로 수송보다 훨씬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아브릴 바누와 ‘국경없는의사회’ 미국 사무총장은 바이든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가자지구에 임시 부두를 건설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진정한 문제, 즉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군사 작전과 살인적인 봉쇄로부터 드러내놓고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다. 가자지구 사람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음식·물·의약품이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군대를 이용해 임시방편책을



3월 15일 가자지구 해안에 도달한 ‘월드센트럴키프친의 구호 선박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도로와 진입로들을 이용해 즉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은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세 차례나 거부했다. 휴전은 실질적인 규모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추가로 학살당하는 것을 막고 절실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다시 촉구한다.”

굶어 죽이기 전술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주의적 회랑”을 운운하던 때 국제 구호 단체 월드센트럴키프친과 오픈암스의 구호 선박

이 3월 15일 가자지구 해안에 닿았다.

가자지구의 부두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연안 수심도 얕아, 대규모 물품을 실어 나를 대형 바지선이 드나들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부기구의 수송선이 출항한 것이다.

이 배에는 밀가루·쌀·단백질 등 식량 200톤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라르나카에 관계자를 파견해 이 선박에 실린 구호품에 하마스가 무기화할 수 있는 전쟁 물자가 없는지 검사했다.

구호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바이든은 대선을 7개월 남짓 남겨 두

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휴전과 이스라엘 제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방은 여전히 중요하다.”

라르나카의 “인도주의적 회랑”은 가자지구 사람들의 굶주림을 이용하는 바이든의 선거 홍보 활동일 뿐이다.

유니세프는 가자지구 봉쇄가 해제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아동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철수한 가자지구 북부 상황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30만 명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 남부를 통과해 북부로 오는 구호품은 거의 없다.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도착한 몇 안 되는 트럭에서 밀가루를 얻으려던 사람들을 향해 발포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2월 말 유엔은 가자지구 북부의 2살 미만 아동의 15퍼센트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3퍼센트는 생명이 위태로운 수준의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다.

전쟁 전에는 가자지구의 5살 미만 아동 가운데 0.8퍼센트만이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를 겪었다.

김인식

요르단 노동조합 활동가가 말한다 “저희는 가자지구에 연대해 파업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국경을 맞댄 요르단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공격에 대한 대중적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요르단 국가는 이 분노에 올라타려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지배자들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 요르단 국가는 분노를 탄압하기도 했다.

요르단 인구 중에는 팔레스타인인 난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1100만 명 조금 넘는 요르단 인구에서 약 200만 명이 팔레스타인인 난민들이다.

요르단 수도 암만은 가자지구에서 고작 14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여러 차례 투옥된 적이 있는 요르단

노동조합 활동가 한 명이 요르단 국가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셜리스트 위커>에 전했다.

“시온주의자들이 가자지구를 상대로 야만적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요르단 노동계급을 비롯한 요르단 사회는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이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안 기구가 가하는 압박을 그다지 강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안 탄압이 거세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중이 가하는 압력이 커질수록 공안 탄압도 거세졌죠. 국가는 많은 활동가들을 체포했어요.

“처음에는 대중 시위가 매일 벌어졌

고 그 기세가 높았지만, 보안 기구의 통제 강화 때문에 줄었습니다.”

최근 요르단 국가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공격을 가한 것은, 요르단 국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지에 열심인 것과 연관 있다.

요르단 국가는 자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을 1970년 9월에 살해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줄곧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공범 구실을 해 왔다.

1994년 당시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 요르단 국왕 후세인,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요르단-이스라엘 간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 협정에

조인했다. 2020년에 체결된 또 다른 협약으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천연가스가 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계속되는 와중에조차 요르단은 이스라엘 국가와 더 많은 협약을 맺으려 애써 왔다.

그런 협약 중 하나는 요르단이 태양 발전 전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담수를 공급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언론들에 따르면,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체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조절해야만 그 협약이 최종 체결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셜리스트 위커>와 얘기를

▶ 10면으로 이어짐

깃은 만행에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은 반 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도 아직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지금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점령에 맞서 싸우고 있다.

3월 17일 일요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아직 저항 세력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 전사 4분의 1이 라파흐에 피신 중이며 이스라엘이 라파흐를 침공해야 승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악랄하게 모욕했다. 이스라엘의 전투 행위를 1930년대 히틀러에 맞선 투쟁에 빗댄 것이다.

“독일에 나치 테러리스트 군대 4분의 1을 남겨 두고는 ‘아냐, 마지막 4분의 1을 끝장 내지 않겠어, 베를린으로 진군하지 않겠어’ 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파흐에 있는 테러리스트 잔당 부대를 섬멸한다는 우리 목표는 민간인들이 라파흐를 떠날 수 있게 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다.”

네타냐후는 라파흐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다른 군사 목표를 점령하는 데에 거듭 실패해 왔다.

가자지구 중부 알시파 병원을 점령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래 시온주의자들의 군사 목표였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1주일 넘게 포위 공격했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인 환자들과 피란민 수천 명이 병원에 갇혔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침탈했다. 이들은 일시 교전 중지 합의 직후 병원에서 철수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은 알시파 병원을 계속 침략·폭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평정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말이다.

3월 17일 일요일 하마스의 군사 날개 알카삼 여단은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알카삼 여단은, 지난해 11월 알시파 병원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휘한 이스라엘 군 지휘관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가가 자신의 군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방이 2003년 이후 이라크 침공·점령 기간 동안 저항을 분쇄하지 못한 것을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서방 점령군은 여러 해 동안 여러 도시에서 밀려났다가 재점령하기를 거듭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자국 군대가 세계 최정상급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으스스대지만, 이스라엘군은 아직 자신의 군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점령하지도,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생포한 포로를 탈환하지도, 하마스를 섬멸하지도 못했다.

이는 네타냐후에게 실질적 문제를 낳고 있다. 미국 상원 다수당 대표 척 슈머는 이스라엘에 총리를 다시 뽑으라고 촉구했다. 슈머는 이렇게 덧붙였다. “네타냐후 연정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필요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다.”

서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민간인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지만, 그렇다고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는 것에 마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무기를 팔았는데도 이스라엘이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네타냐후의 실패한 전쟁이 중동 전역에서 반란을 촉발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 장성: “우리 병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살해되고 있다”

퇴역한 이스라엘군 참전 장성 조차 이스라엘이 대(對)하마스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군 전(前) 소장 이츠하크 바릭은 3월 17일자 <마리브> 신문에 이렇게 썼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고, 전 세계에서 동맹을 잃고 있기도 하다.

“우리 장병들이 수색 조치 혹은 적절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옥에 진입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비트랩과 폭탄에 의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고 있다.”

바릭은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헤지 하레비가 현실에서 “유리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레비는 오래 전에 전장 장악력을 잃었음에도, 자신과 비슷한 자들을 대령·중령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가자지구 상황과 레바논의 대(對)헤즈볼라 전선 상황이 역풍을 날릴 것이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출처 Socialist Worker, ‘For all its barbarity, Israel hasn’t won its war on Gaza’ (2024. 3. 18) / 번역 김준호

▶ 9면에서 이어짐

나는 노동조합 활동가는, 평범한 요르단인들이 느끼는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노

이 활동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7일 이래로 저희는 이스라엘 정부와 단교할 것을 요르단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는 요르단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주재하기를 원치 않고, 요르단 대사관도 이스라엘에서 철수하

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한 노동조합은 자랑스럽게도, 정부가 저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 국가]와 체결한 천연가스 협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하는 전국적 캠페인에 가장 앞장서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요르단에 주재하는 미국·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의 대사관 앞에서 시위와 행진을 벌여 왔습니다.

“저희는 가자지구의 동포들을 위한 헌혈 캠페인과 인도적 지원 조직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활동가는, 10월 7일 이후 요르단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해 파업을 벌여 왔고 자신의 소속 노조도 이 파업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요르단 노동자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이 가자지구에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가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산업 행동 상당수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할 때까지 미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

를 지지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기업주들과 직접 대결하는 파업도 여전히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중동 전역에서 기업주들과 부패한 지배계급에 도전해 그들을 타도함으로써만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 자신의 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이 결합되고 서로를 성장시킬 때 중동 전역의 지배계급을 진정으로 떨게 할 수 있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We strike for Gaza,’ says trade unionist in Jordan’ (2024. 3. 12) / 번역 김준호

말뿐인 미국의 경고로 이스라엘의 라파흐 공격 막을 수 없다

소피 스콰이어

미국의 공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번 주 초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에 대한 유혈 난자한 지상군 공격 태세를 갖췄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공격에 나서면 인종학살은 더한층 끔찍한 지경으로 발전할 것이다.

3월 9일 토요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라파흐에서 충돌이 격화되는 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그것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이라며 “팔레스타인인 3만 명이 더 목숨을 잃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 득보다 실을 더 안겨 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재빨리, 자신이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무기 지원을 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는 바이든의 매가리 없는 축구를 일축했다. “알다시피 내게도 ‘레드라인’이 있다. 뭔지 알 것이다. 10월 7일 공격이 절대로, 두 번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말살하고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겠다는 결심을 꺾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인 포로] 석방 없이는 전투 중단 없다.”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하마스는 이렇게 응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협상에 성심껏 임할 테지만, 포로 교환 성사에 있어 우리의 최우선 조건은 적군의 철수이고, 이에 더해 피란민 귀환과 가자지구 재건이 보장돼야 한다.”

굶주리는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도 제국주의적 위선이 있다.

굶주림

미국은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공중 투하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공한 전투기를 몰고 미국이 공급한 포탄·미사일을 [미국이 구호품을 제공한다는] 바로 그 굶주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

바이든이 국정 연설을 한 바로 그날, 미국이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한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서들이 폭로됐다.

이 하는 구호품 공중 투하에는 위험도 뒤따른다.

지난주만 해도 낙하산이 오작동하는 바람에 공중 투하되는 구호품 상자에 맞아 다섯 명이 죽었다.

바이든은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임시 부두를 건설하도록 미군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부두 건설에 60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호 트럭과, 이미 있는 인근 항구를 통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가자 지구에 구호품이 대량 공급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가가 지원하는 정착자 집단들이 이를 고의로 뒤흔 놓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가자지구에 항구가 없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지난 17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항구 건설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봉쇄를 지지했다.

그런데 바이든이 국정 연설을 한 바로 그날, 미국이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한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서들이 폭로됐다.

미국이 판매한 무기 중에는 탱크 포탄 1억 600만 달러어치, 155밀리미터 포탄 부품 1억 4750만 달러어치도 있었다.

바이든은 의회를 우회해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까지 3만 1000명 이상 살해됐다는 것이 아니다. 다치고 주리고 병든 수만 명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다.

바이든이 우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막대한 학살을 저지르면 그 반감으로 중동에서 반란을 촉발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24년 살해된 팔레스타인 보건 노동자들의 사진을 모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포스터

서안지구 습격해 주민들 체포·구타

이번 주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대한 억압 강도를 높였다.

3월 11일 월요일 아침, 이스라엘군은 점령지들의 크고 작은 도시 여러 곳에서 대규모 탄압 작전을 폈다.

라말라, 칼킬리야, 베들레헴, 헤브론, 살파트,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체포됐다.

이 작전 와중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두들겨 맞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이 파손됐다.

3월 10일 일요일 저녁 이스라엘 경찰은 예루살렘 소재 알아크사 사원에서 [라마단 저녁에 하는 특별 기도] 타라위 기도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이 사원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체포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알아크사 사원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거듭 가로막아 왔다.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고의적 도발 행위이다.

이런 공격이 자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 방송은 이스라엘군 24개 연대, 20개 중대, 특수부대 2개 소대를 서안지구에 투입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여기에 서안지구 정착촌에 있는 예비군 5000명을 더하면 총병력 1만 5000명이 서안지구에서 복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점령지 서안지구에 정착자 주택 수천 채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담당 장관 오리트 스트록은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3500채에 이르는 정착민 주택을 약속했었고 이를 지키고 있다. … 우리는 힘을 합해 정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을 비롯한 서방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정착촌 확장은 서방 정치인들의 “강경한 언사”가 공문구에 불과함을 보여 준다.

출처 Sophie Squire, 'Empty warnings from US won't stop Israel's war on Rafah' (2024. 3. 12) / 번역 김준호

함께합시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27차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
인종 학살 멈춰라
가자 봉쇄 해제하라

일시: 3월 23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정문 앞 인도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7550-2131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호소

보리스 카갈리츠키를 석방하라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츠키는 곧 플루토 출판사에서 출판될 그의 새 저서 《장기 후퇴 — 좌파의 쇠퇴를 되돌릴 전략》에 이렇게 썼다.

“2008~2010년의 위기는 국제적으로든 일국적으로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대불황을 극복한 탓에 그 체제의 재생산 구조를 송두리째 파괴할 더 고통스럽고 재앙적인 위기를 겪어야 했다.”

카갈리츠키는 그런 재앙적 결과의 사례로 “2020~2021년 러시아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의 강화와 뒤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다. 이 모든 것이 3월 17일 지난 일요일 러시아 대선에서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푸틴은 별다른 이변 없이 압승을 거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자들, 특히 좌파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가운데 그런 승리를 거뒀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반자본주의 지식인이자 1980년대부터 나와 친구로 지낸 카갈리츠키 자신도 그 탄압의 희생자가 됐다. 카갈리츠키는 지난해 7월 “테러를 정당화했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그는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를 했다. 재판부가 “정의를 어지럽히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달 러시아 군사 법원은 카갈리츠키에게 징역 5년 형과 출소 후 2년간 웹사이트 운영 금지를 선고했다. 이런 변덕스러운 탄압 전술에 당한 전쟁 반대자들은 카갈리츠키만이 아니다. 2주 후에는, 스탈린주의 시대의 범죄를 폭로하는 운동을 하는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의 올레크 오를로프가 검찰의 항소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군대를 뺐다”는 이유였다.

탄압

구금돼 있는 동안에도 카갈리츠키는 의연하고 쾌활했다. 잠깐 풀려난 사이에 지지자들과 온라인에서 답소를 나누던 카갈리츠키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서 만난 흥미로운 사람들에게 관한 얘기를 들려줬다. 그러나 이제 카갈리츠키가 처한 상황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65세의 고령이 된 그는 이제 미어터지는 감방에서 생활해야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은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츠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한다. 몇 주 전에는 반정부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북극의 감옥에서 사망했다.

카갈리츠키와 그 외에 전쟁에 반대하다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광범한 국제 운동이 구축됐다. 그리고 지난주에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사람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 그중에는 나오미 클라인, 영국 국회의원인 제러미 코빈과 존 맥도널, ‘불복하는 프랑스’의 지도자 장뤼크 멜랑송, 아일랜드의 ‘이윤보다 인간’ 당 국회의원인 리처드 보이드-배렛,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4명과 브라질 국회의원 2명, 독일 좌파당 의원이자 당대표를 지냈던 베른트 릭싱거와 야니네 비슬러와 그레고르 기지, 전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 지식인인 슬라보예 지젝과 타리크 알리, 프레드릭 제임슨, 에티엔느 발리바르, 러시아 좌파 정치인이자 노동조합 활동가인 미하일 로바노프, 폴란드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인 피오토르 오스트로프스키, “포커스 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초점)의 월튼 벨로도 있다.

서명을 받고 있는 탄원서는 놀라울 만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됐다. 당신도 여기서 동참할 수 있다: <https://chn.g>

it/pdm4TnJPYH 이를 되도록 널리 알려 달라. 카갈리츠키와 다른 탄압받는 활동가들에 대한 지지를 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키워야 한다.

인상적이게도 카갈리츠키는 《장기 후퇴》에서 “좌파 운동의 쇠락과 지리멸렬”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도 “낙관과 열의”를 갖고 미래를 전망한다. 책의 결론에서 카갈리츠키는 “권좌에 있는 잿빛 인간들”에 맞선 투쟁에 관한 멋진 구절을 인용한다. 그 구절은 소련 시절 스트루가츠키 형제의 빼어난 공상과학 소설 《신이 되기는 어렵다》에서 따온 것이다.

스트루가츠키 형제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예언한다. “전례없는 과학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지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거대한 사회적 격변의 시기가 올 것이다. 잿빛 인간들은 인류를 중세 시절로 되돌려놓기 위한 최후의 전투에 나설 테지만 그들은 패배할 것이다. 그들은 계급 차별이 사라진 사회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세력으로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카갈리츠키와 러시아 등지에서 구속된 다른 반전 활동가들의 석방에 기여하는 것은 이런 해방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보 전진일 것이다.

번역 이원웅

보리스 카갈리츠키
석방 탄원 서명



미국 전역에서 거대한 힘이 고개를 들고 있다. 수십만 명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광범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군에 기술과 물자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휴전 촉구를 거부하는 미국의 원들의 사무실에 난입해 그 업무를 방해했다. 최근 이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공범 구실을 하는 미국 대통령 “제노사이드 조” 바이든에 맞서 새로운 방식의 항의 행동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 투표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항의 투표 운동은, 한 팔레스타인 지지 연대체가 미시건주(州)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 투표를 호소하며 시작됐다.

미시건주의 교사 마이크는 이 전략에 대해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설명했다. “미시건주에서 바이든은 맞수 없이 선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과 만만찮게 경합하는 후보는 없었고, 군소 후보들뿐이었죠. ‘지지 후보 없음’ 투표 운동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하나도 없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제노사이드 조”

“흔히 쓰이는 방법은 아니죠.” 마이크의 설명은 이어졌다. “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또 바이든이 휴전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문제를 부각시켰어요. 캠페인 조직자들의 목표는 1만 표였습니다.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가 미시건주에서 1만 표 차로 이긴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10만 1000명이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했다. 미시건주 민주당 예비경선 전체 투표자의 13.2퍼센트에 이르는 숫자였다.

뒤이어 콜로라도주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투표자의 8.9퍼센트인 5만 1000명이, 매사추세츠주에서 9.3퍼센트인 5만 9000명이, 미네소타주에서 19퍼센트인 4만 6000명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2.7퍼센트인 8만 8000명이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3월 12일 화요일 워싱턴주 민주당 예비경선에서는 투표자의 8.1퍼센트인 5만 8000명이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했다. 이 기사가 발행되는 현재까지 “지지 후보 없음” 표는 도합 43만 4000표였다.

마이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 표는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면 미시건주에서 또 질 거다’



사진 출처: Ted Eytan (틀리커)

미국 교사 활동가가 말한다

바이든을 겨냥하는 새로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하고 말이죠.”

이 표 자체는 바이든 대선 후보 지명 가도에 거의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미시건주에서 나온 “지지 후보 없음” 표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가 미시건주 몫으로 배정한 전당대회 대의원 117명 중 단 두 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표는 매우 강력한 항의 메시지입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 운동은 불쑥 등장한 운동이에요. 매우 자생적인 운동이죠.”

마이크는, 이 운동이 만만찮을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첫 징표가 “바이든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지지 후보 없음’ 투표는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징징거리며 가스라이팅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다고 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헛소리죠.

“분명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 후보 없음’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데서 보듯, 기층의 정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는 미시건주에서 나온 “지지 후보 없음” 투표를 폼뻐하는 모든 논평을 일축했다.

“많은 논평가들은 미시건주에서 ‘지지 후보 없음’ 표가 많이 나온 것이 아랍계·무슬림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시건주가 미국 주들 중 아랍계 인구가 손꼽히게 많은 곳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미시건주에서 무슬림·아랍계 인구는 전체 인구의 5퍼센트도 안 됩니다. 반면 13퍼센트가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랍계·무슬림 사람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데서 보듯, 기층의 정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들의 분노가 추동력이 되긴 합니다만, 이 운동은 그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미시건주의 특색일 뿐이라고 일축할 수 없어요. 이 운동은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마이크는 “지지 후보 없음” 투표가 “이스라엘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에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분노”를 반영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트럼프와 그의 반동적 포퓰리즘으로 기울 것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무슬림 혐오자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인정해 주는 선물을 줬어요.

“사람들이 [대선 때 투표소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투표를 하지 않거나 제3당에 투표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둘 모두 끔찍해요. 굳이 둘 사이에서 차이를 찾자면 트럼프는 좀 덜 개입주의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트럼프가 우익 국수주의자라서 그랬던 거지, 아랍인·무슬림을 아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력을 기꺼이 사용할 자임을 압니다. 누구도 트럼프에게 일말의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는 이 운동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운동은 의식적으로 선거를 초점에 두고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 운동은 바이든에 대한 항의 투표 운동이라는 프레임으로 형성된 탓에 여전히 민주당의 정책과 그 당의 내부 작동에 관한 프레임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지 후보 없음”

그렇다고 마이크가 “지지 후보 없음” 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그저 상징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갈 잠재력이 있습니다. 선거 정치를 넘어, 민주당 바깥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말이죠.”

역사적으로 미국의 운동들은 선거 정

▶ 7면으로 이어짐

미국 대선

진절머리 나는 트럼프-바이든 재대결

지난주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올가을 미국 대선은 70년 만에 지난 대선 후보들이 재대결하는 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재대결은 미국 정치가 위기에 빠진 와중에 치러진다. 또 미국에서 파업이 부활하는 와중에, 미국 제국주의가 여러 전선에서 싸우는 와중에, 양당 후보 모두 지독히도 인기 없는 상태에서 출마한다. 별로 다시 보고 싶은 재대결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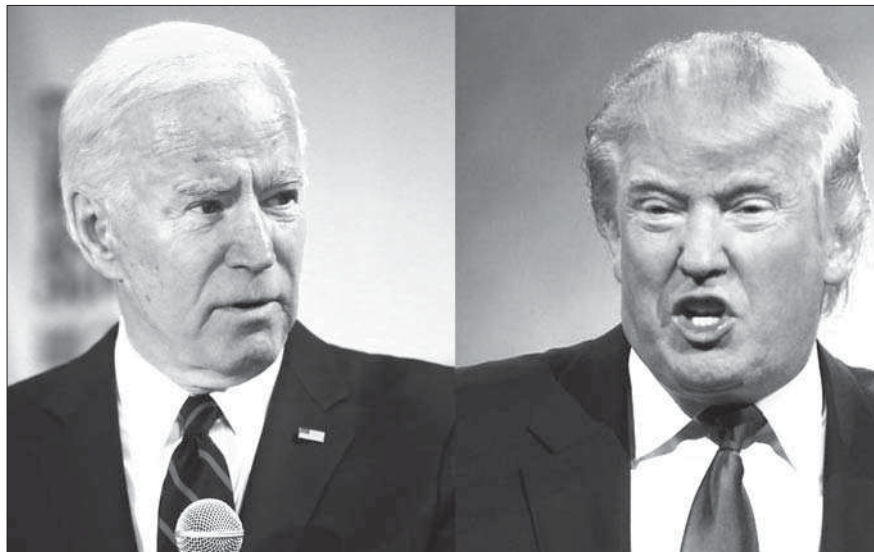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민주 양당이 대중을 대변하지 않으며 제3당이 필요하다는 데에 미국 성인 63퍼센트가 동의한다.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이 대변하는 바에 꼭 들어맞는다.

바이든은 미국 제국주의의 충실한 수호자이며,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열성을 다하는 자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것은, 신자유주의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어느 것에도 응답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양상은 또한 미국 기성 정치권이 갈수록 능력을 잃어가는 징후이기도 하다. 미국 성인 중 단 27퍼센트만이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데에 만족하며, 단 32퍼센트만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데에 만족한다.



누가누가 더 인기 없나

미국 유권자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생활 수준이 하락했고 바이든 정부하에서 처지가 나빠졌다고 여긴다고 말한다.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바로 그날 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 전에도 바이든 정부는 450억 달러어치 군사 지원과 250억 달러어치 재정 지원을 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550억 달러에 이르는 별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계류돼 있다.

미국 제국주의는 여러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고, 중국과는 경제 전

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자기 입장을 지키려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대리전에 재정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트럼프가 자신에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일부 부문과 충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 지배계급과 단절하고 있는 것도 아

니다. 미국 권력층 일부는 대(對)러시아 전선에서 물러나 더 위협적인 대(對)중국 전선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상층부에서 혼돈이 이처럼 고조되는 한편, 노동자들은 반격에 나서고 있다. 2023년에 미국 노동자들은 최근 23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파업을 벌였다. 그중에는 보건 노동자 7만 5000명이 참가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건 파업도 있었다.

또, 자동차 노동자 5만 3000명이 포드·제너럴모터스·스텔란티스에 맞서 사상 최초의 공동 파업을 벌였다.

2023년에 미국 노동자 포함 45만 8900명이 393건의 파업을 벌였다.

이런 노동자 투쟁의 부활에서 아래로부터 저항의 징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노동자 투쟁의 부활은 제자리 걸음인 임금, 계속 후퇴하는 건강보험·연금, 장시간 노동, 형편없는 노동 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깊은 분노를 보여 준다.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더 많은 파업이 벌어져야 한다. 또, 혁명적 사회주의 대안이 민주·공화 양당 밖에서 건설돼야 한다.

토머스 포스터

출처 Thomas Foster, 'The new movement for Palestine targeting Joe Biden — Election re-match offers up more of the same' (2024. 3. 17) / 번역 김준호

▶ 6면에서 이어짐

치의 틀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문제를 겪어 왔다. “과거에 미국에서의 전쟁 반대 운동이 그랬습니다. 예컨대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씨가 마르다시피 했죠.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항의를 눈 씻고 찾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 좌파의 문제는, 버니 샌더스나 [민주당 좌파적 하원의원 모임] ‘스쿼드’처럼 민주당에 흡수돼 버리지 않으면서 완전히 종파적이지도 않는 분별 있는 좌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 운동이 벌어질 때면 언제나 완충 장치 구실을 한다. 바이든도 최근 부활하는 파업 투쟁의 충격파를 흡수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민주당의 그런 구실은 1960년대에 흑인 평등권을 위한 대중 운동과 여성·성

소수자 해방을 위한 대중 운동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 이 운동들은 민주당 대선 선거 운동으로 옥여넣어졌다.

보다 최근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이크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런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언급을 삼가야 한다는 압력이 있는 몇몇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이 매우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압력이 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대부분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언급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훨씬 더 공공연한 지지도 나타나고 있지요.

“바이든은 기껏해야 베냐민 네타냐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불평을 늘

어놓거나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무제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불평이라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아래로부터 기류 변화가 바이든을 겁먹게 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잠재력

“저는 선거 정치로 미국 제국주의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지만, 민주당이 이 쟁점 때문에 선거에서 질까 봐 우려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일부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거리 시위로 뒷받침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파장은 마치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공중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노동자 운동의 부활은 낙관을 갖게 해 주는 원천으로 남아 있다. 마이크

는 이렇게 전했다.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만큼 언론에 회자되지는 않지만 지역·주 수준의 파업들도 많아요.

“수면 아래에서 들끓고 있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노동자 운동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급진화, 사회주의의 재부상 흐름을 한데 엮어야 합니다. 이는 커다란 과제이고, 이를 수행하려면 아직은 비교적 작지만 이제 막 싹트고 있는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잠재력은 분명 있어요.

“이번 대선 전망이 우울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공포와 형편없는 민주당에 대한 무관심 사이의 경합이기 때문입니다.”

토머스 포스터

출처 Thomas Foster, 'The new movement for Palestine targeting Joe Biden' (2024. 3. 17) / 번역 김준호

이렇게 생각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심화되는 제국주의 위기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현재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례적인 인종 학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에도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래 여러 차례 그곳을 공격한 바 있다. 그 공격은 흔히 짧은 기간에 많은 팔레스타인인 사상자를 낸 뒤 휴전 합의나 포로 교환 등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이런 패턴을 벗어나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죽음과 파괴의 규모도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10월 7일 이래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수는 3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가자지구 인구의 대부분인 거의 200만 명이 피란민이 됐다. 이제 이스라엘은 피란민들이 몰려 있는 라파흐를 공격하려 한다.

이는 네타냐후의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제2의 나크바'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의 대부분이나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려는 듯하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강대국들은 이를 한껏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서방 제국주의가 보이고 있는 더 큰 패턴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들의 권력, 특히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이데올로기의 해체모니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방은 기존의 우위를 지키려고 더욱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위기 속에서 벌어진 이번 전쟁은 그 위기를 더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고, 제국주의자들은 이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다.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이 국제적으로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방의 고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전쟁에서 서방의 고립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대한 반응이나, 브라질 대통령 룰라가 강경하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도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았음에도 그런 비난을 멈추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쟁은 중동 통제력이 약화된 서방 제국주의의 위기를 보여 준다

않고 있다.

지금 상황을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제국주의의 위기가 뚜렷하게 보인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 레바논을 봉쇄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용단 폭격하자 레이건은 당시 이스라엘 총리 메나헴 베긴에게 전화를 걸어 폭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고, 베긴은 즉시 이를 따랐다.(그러자 당시 레이건은 “내게 그런 힘이 있는지 물렸다”고 감탄했다.) 그 후 레이건은 미국 해병대를 베이루트에 보내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의 철수 과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해병대가 자살폭탄 공격을 당하자 레이건은 미군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에게서 이런 유연함을 볼 수 없다. 중동 통제력이 약화돼 온 만큼 이스라엘의 구실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미국 지배력의 상대적 약화는 바이든과 네타냐후 사이에 첨예한 모순을 낳고 있다. 최근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례적인 발언이다. 라파흐를 공격하면 레드 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연설에서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무기와 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제력

바이든의 임시 부두 건설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이든은 가자시에서 47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미군 수천 명을 투입해 구호 물자를 들인 임시 부두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것을 짓는 데는 6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가자지구에 구호 물자를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처구니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굶주리는 가자 주민들에게 알량한 식량을 공중 투하하지만,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와 미국이 준 폭탄을 가자지구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휴전은 합의되지 않을 것 같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렇

게 요구했을 것이다. ‘휴전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도 자금 지원도 끊을 것이다.’ 1990년대에 이스라엘이 오슬로협정에 따른 ‘평화 프로세스’를 좌절시키려 하자 조지 부시 1세 정부도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기를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조만간 라파흐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을 더 키워야 한다.

한편,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유례없는 규모로 성장한 것도 제국주의 위기의 한 측면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양극화는 서방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은 이 체제가 낳는 불의의 상징이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즉,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는 강대국 정부들의 편인가, 아니면 그들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도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의 참여가 집회의 활력과 기세를 유지하는 데서 큰 구실을 하고 있다

런 정서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에 서방 정부들은 이슬람 혐오적 언사와 인종차별적 정책,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극우의 부상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극우는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약진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극우는 결코 저절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서방 각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이 극우가 성장할 토양을 제공해 온 것이다. 그런 곳의 혁명가들은 인종차별과 극우에 맞선 운동을 현재 강력하게 일어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총선이 끝난 후에는 이주민·난민을 공격하고 그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난민법 개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이주민·난민이 적극적인 구실을 하고 있는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겨냥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지지자들은 이런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정치적 스펙트럼의 왼쪽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파장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다. 서방의 주류 개혁주의 정당들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좌파당 등, 사민당

보다 왼쪽에 있는 좌파 정치 조직들도 시온주의에 굴복했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한사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기증 당원들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얼마 전 영국 보궐선거에서는 2000년대에 노동당의 '테러와의 전쟁' 지지에 반발하며 떠오른 인물인 조지 갈러웨이(영국 노동자당)가 노동당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뒀다.(갈러웨이가 자신은 여러 면에서 문제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승리는 노동당에 대한 분노를 반영한다.)

거의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그 규모와 수준이 나라에 따라 불균등하다. 하지만 몇몇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활력과 기세

이 운동은 새로운 참가자들을 꾸준히 끌어들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만행은 그 한 요인이다. 현재 가자 주민들은 아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이 라파호 공격을 본격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대 운동의 중심에는 이 운동을 추동해 온 더 급진적이고 투쟁

적인 사람들이 있다(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많은 경우 아랍인과 무슬림일 때가 많다.

광범한 대중 동원이 벌어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 한편에는 광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전쟁저지연합 등의 기존 주요 연합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연합체들이 동원에 비교적 굵고 상황의 긴급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더 급진적이고 더 젊고 대체로 무슬림들이 주도하는 단체들이 투쟁의 수위를 높이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집단 속에서 혁명가들은 좀 더 투쟁적인 부위와 관계를 맺고 이들을 결집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기존 연합체들과 협력하면서도 말이다.

한국에서는 객관적 여건 때문에 영국만큼 대규모로 동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슷한 양상도 볼 수 있다. 모든 주요 개혁주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운동과, 더 급진적이고 더 활기찬 단체들과 혁명가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특히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이 참가하고 있는 운동이 나란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운동 모두 규모가 작고 고만고만하지만, 현재 더 활력과 스피릿, 기세를 보이고 규모가 좀더 크고 줄지 않는 쪽은 더 급진적이고 더 투쟁적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쪽이다. 더 급진적이고 더 투쟁적인 메시지와 활기가 대오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은 그런 기세의 차이를 낳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혁명을 경험한 바 있고,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겪고 있는 난맥상에서 다시 자신감을 얻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난민 운동 지지를 통해 이들과 관계를 맺어 온 덕분에 이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우리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풍부한 이론적 전통도 진가를 발휘했다.(우리 경향의 창시자 이가엘 글록슈타인 자신이 팔레스타인인이었다.) 그러한 이론적 전통 덕분에 우리는 예컨대 이슬람주의에 관해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었고,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런 풍부한 이론적 전통은 새로운 소수 사람들이 혁명적 정치에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독립의 열쇠이자 세 기둥, 즉 팔레스타인인들 자신의 저항(우리는 그들이 어떤 수단을 택하든 그 저항을 지지할 것이다), 중동 전역 노동자·빈민의 혁명적 행동, 시온주의 국가의 존속에 지원을 제공하는 자국 정부에 맞선 저항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세 기둥은 또한 소수를 혁명적 정치로 끄는 극이 될 수 있다. 운동의 규모는 나라마다 불균등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은 국제적 운동의 수위에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의 혁명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 웹사이트에서 성명의 영어/아랍어 버전도 볼 수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문의: 02-2271-2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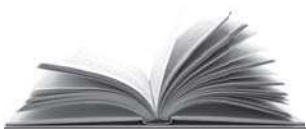
ws.or.kr/join

가입하세요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서평 |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은 아슈카르가 전망하는 것보다 더 나아갈 수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 전쟁의 이례적 성격과 그 심각성을 조명하는 책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질베르 아슈카르 지음,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번역, 리시울, 2024)이 나왔다.

저자인 질베르 아슈카르와 번역자가 강조하듯이 이번 이스라엘의 학살 전쟁은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저질러 온 만행을 훨씬 뛰어넘는다.

“나크바 ... 당시 팔레스타인 거주 아랍인 130만여 명 중 1만 1000명 이상이 살해됐다. 가자에 자행된 이번 공격을 보자, 7주가 채 지나지 않은 현재 가자지구 주민 230만여 명 중 최소 1만 5000명이 사망했고, 거주민 절반 이상이 북부에서 남부로 쫓겨났다.”

아슈카르는 이 인종 학살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서방 언론들과 정부들, 이스라엘을 돕는 이집트 정부의 행태 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지금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마스의 저항을 제압한 이후의 로드맵을 둘러싼 것이고, 이 전쟁은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아슈카르는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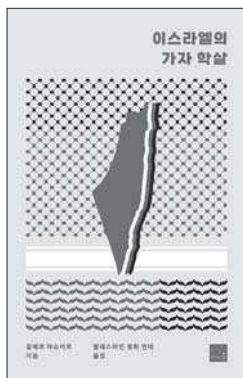
아슈카르는 이번 전쟁이 ‘나크바’ 완수 계획을 담은 이스라엘 정보부 문건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에 주목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항의 운동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기아에 직면하고, 피란민 집결지인 라파흐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공격이 임박한 지금, 이 학살 전쟁의 심각성과 국제적 항의 운동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다.

하마스의 오판?

한편, 아슈카르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도덕적으로 규탄하기는 거부하지만 그것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는 훨씬 의심스럽다”고 본다. 그 공격이 이스라엘의 무지막지한 보복을 초래하고, 네타냐후에게 가자지구를 점령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월 7일 공격이 하마스의 종교적 비합리성에서 비롯한 오판의 결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질베르 아슈카르 지음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옮김
리시울, 118쪽, 12,000원

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0·7 공격이 모든 아랍인과 무슬림의 참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하마스의 기대는 딱히 종교적이랄 게 없다. 세속적인 파타 지도자들도 초창기에 게릴라 투쟁을 하면서 똑같은 기대를 했다.

그런데 (웁긴이가 해제에서 지적하듯이) 10월 7일 공격은 하마스만의 것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극우적인 이스라엘 정부의 공격을 앞두고 팔레스타인인의 모든 저항 세력들이 “합동 작전 본부를 꾸려 최소 2년 전부터 기획한 것이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고 있었다. 이런 노골적인 배신 움직임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이제 없는 셈 치겠다는 처사였다.

그러나 10월 7일 공격 때문에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다시 거리를 뒀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자국 대중의 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슈카르는 이런 정치적 효과를,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이 중동 정치와 서방 제국주의에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을 다루지 않는다.

이런 약점은 아슈카르가 제시하는 팔레스타인 해방 전략과 관련이 있다. 아슈카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비폭력 대중 투쟁”으로 국제 여론과 이스라엘 사회 내의 지지와 압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열쇠라고 본다.

아랍 세계 자체에서 제국주의 지배



아슈카르는 10월 7일 공격이 중동 정치와 서방 제국주의에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을 다루지 않는다

질서에 맞선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랍의 반란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여기에는 아랍 혁명의 패배에서 비롯한 비판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아슈카르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그 일대의 제국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혁명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애초에 아슈카르는 시온주의 국가를 해체한다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2009년 인터뷰에서 아슈카르는 그런 목표를 현실적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최대주의”라고 일축한다. 그러면서 1967년 이전 국경으로 이스라엘을 철

수시키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도 아슈카르는 “한 국가 방안이나 두 국가 방안이나를 둘러싸고 ... 운동 내 논쟁은 부적절”하고 그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 국경으로 철수하는 것을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합의된 요구의 하나로 제시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얘기다. 그러나 민족 자결권을 지지하면서도 그 민족 운동 지도자들의 전략·전술을 논의하고 비판할 수 있다.

아슈카르는 중요한 쟁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 방안’과 ‘두 국가 방안’을 둘러싼 논쟁은 팔레스타인



의 해방이 시온주의 국가를 분쇄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 개혁으로 시온주의 국가를 개혁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 있다.

물론 '한 국가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 국가를 강제로 해체하지 않고 개혁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지금은 (1990년대 초처럼) 러시아가 붕괴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새로 떠올랐고,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미국 등 서방이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극우가 득세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 국경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과 팔레스타인 바깥의 수많은 난민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물론 아슈카르는 1967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단계론적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시온주의 국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진척시킬 어떤 발판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결국 1967년 체제 이전이든 이후든 시온주의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시온주의 국가의 해체라는 목표를 무기한 연기(실천으로는 기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계적·점진적 접근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단계적 접근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국가와의 협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무장 투쟁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파타 등 옛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바로 그런 길을 걸었다.

물론 아슈카르는 궁극으로는 시온주의 국가가 어떻게든 끝장나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단계론인 데다) 아슈카르는 그것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가 팔레스타인인들의 “비폭력 대중 투쟁”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계있다. 그런 방식의 투쟁이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을 이끌어 내고 시온주의

에 대한 도전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슈카르는 1987년 제1차 인티파다를 그런 사례로 제시한다.

제1차 인티파다의 교훈

그러나 인티파다를 비폭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록 제한된 수준이지만 그 항쟁은 폭력을 수반해야 했다.

또한 제1차 인티파다가 분명 위대한 항쟁이었지만 결코 혁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1차 인티파다 자체는 기존 국가 기구의 존재를 위협하지 못했다.

제1차 인티파다가 이스라엘 내에서 낳은 정치 위기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배 전략을 둘러싼 양극화였다. 제1차 인티파다를 포함한 이후의 인티파다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성장했다.

그러나 제1차 인티파다는 아슈카르가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위협이 됐다. 바로 중동 전역에서 연대 시위를 촉발한 것이다. 특히 이집트의 시위는 친미 독재 정권에 맞선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운동들은 당시 냉전에서 막 승리한 미국이 중동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나머지 중동 동맹국들을 결집시키는 데 심각한 차질을 줬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일절 협상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을 미국이 협상장으로 끌고 와 오슬로협정을 맺게 한 것이다.

즉, 인티파다의 교훈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중동 전역의 반란에 도화선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변 아랍국 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크게 억압받는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이 아랍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슈카르는 “비폭력 대중 투쟁”을 강조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구실을 사실상 국제적 지지 여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실을 할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투쟁은 결국 이스라엘 국가와의 대결로 나

아가야 하는 만큼 “비폭력 투쟁”을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슈카르가 결정적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물론 아슈카르의 지적처럼 아무리 용맹한 팔레스타인인 무장 투쟁도 힘의 절대적 열세로 이스라엘 국가를 타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랍의 반란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 자리 잡게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은 오판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평가돼야 한다.

분명 하마스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하마스는 무장 투쟁으로 주변 아랍 정부들을 압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자 한다. 제국주의 지배 질서 자체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려 한다. 예컨대 하마스는 현재 요르단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요르단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마스의 무장 투

쟁이 이스라엘과 서방 그리고 서방 제국주의의 최근 위기를 드러냈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그 투쟁이 아랍 세계의 반란을 부추기기를 바라야 한다.

현재 아랍 세계에서 혁명적 운동이 재부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이 다른 나라, 특히 이스라엘의 여론을 움직이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랍 세계 반란의 도화선이 되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망 있는 길일까?

이스라엘은 장기적 우경화의 길을 걸어 왔다. 반면, 현재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무슬림들과 아랍계 청년들은 급진화를 이끄는 핵심 집단이다. 2010년대 말에 수단,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등지에서 일어난 항쟁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이 여전히 정치적 격변의 현장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아슈카르는 이스라엘보다는 아랍으로 눈을 돌려야 하고, 더 급진적이고 더 투쟁적인 전망 속에 스스로 자리잡아야 한다. 현재 그의 전망은 서방의 급진적 지식인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

이원웅

포럼

마르크스주의와 팔레스타인

4월 7일(일)
12:00-17:00

장소: 성동청소년센터
1층 무지개극장
(왕십리역 3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12,000원(하루)

문의
영어와 아랍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시간표 참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례 없이 강경하게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살하려 들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면서도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일까요, 모순과 위기의 반영일까요?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망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대 운동에 주는 함의를 토론하려 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염원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정치의 극우화와 인종학살 로드맵
발제 **박이랑** 중동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더리티> 공동 편집자

2000년대 이후 중동 질서의 변화
발제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발제 **이원웅** <노동자 연대> 기자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모자 가능) ✉ wsorg@ws.or.kr



기획 연재 팔레스타인, 저항, 혁명 — 해방을 향한 투쟁 ⑦

BDS 운동의 부상과 시온주의 측의 반격

- ① 이스라엘 건국, 팔레스타인의 재앙
- ②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시작되다
- ③ 오슬로 협정 이후 -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 ④ 가자지구: 하마스의 부상
- ⑤ 제국주의의 경비견 이스라엘
- ⑥ 아랍 세계의 혁명과 반혁명
- ⑦ BDS 운동의 부상과 시온주의 측의 반격
- ⑧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BDS 운동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이콧(Boycott), 투자 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를 하자는 캠페인으로 2005년 팔레스타인인들의 사회 운동들과 노동조합들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그 선언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세 핵심 요소: 팔레스타인인 난민, 점령지[서안지구·가자지구·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인”의 이름으로 선포됐다.

BDS 운동은 점령지 내 이스라엘의 행위를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자체가 인종차별적 국가라고 규정한다. 또한 BDS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존엄을 각인시키고,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에 대한 국제 연대를 호소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주적 운동이다.

2005년 이후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무게 중심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에 대한 일반적 지지에서,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을 세계 상업·정치·문화 영역에서 고립시키는 운동으로 이동했다.

BDS 운동은 자선 단체나 노동조합, 대학, 종교 공동체 내에서도 주주총회, 지방의회에서,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는 인종차별적 정책과 잔혹한 억압을 지지하고 거기에서 득을 보는 기업·기관과 거래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문제 제기한다.

BDS 운동의 이런 전략은 무장 투쟁으로 민족 해방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나 시온주의와의 타협을 추구하는 전략, 둘 모두가 아닌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BDS 전략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식민 지배에 맞서고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들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군사력만으로는 미국이 지원하는 공세적 식민 지배를 물리칠 수 없다는 21세기의 현실을 이해한다.

또, BDS 운동은 적절한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약자의 입장에서 시온주의 정부와 협상하는 것으로는 압도 다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해방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BDS 운동은 시온주의가 이스라엘 바깥에

서 정당성 위기를 겪게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또, 그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운동을 수십 년 동안 유지시켜 온 다음 기본 원칙들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시켜 줬다.

-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난민들과 그 후손들의 귀환할 권리
-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
- 이스라엘의 “유대인 국가”(종교적·종족적 기준에 따라 시민권을 인정하는 국가)로 존재할 “권리”에 대한 거부

BDS 창립 선언문은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속한 단체가 이스라엘 단체와 교역하거나 협력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범죄의 공범이 되게 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그 선언문은 이스라엘 국가에 제재를 가하라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이스라엘 국가나 기업과의 합작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고 기업들에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그 선언문은 정의와 평등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단체들을 보이콧하고, 제재와 투자 철회 운동에 동참하라고 호소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BDS 운동은 단지 이스라엘 기업들이 서안지구에서 불법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을 보이콧하는 운동이 아니다.

BDS 운동은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에 국제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난민들에게 귀환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다. 그런 만큼 BDS 운동은 서안지구 생산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보이콧 대상으로 삼는다.

서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BDS 운동은 주요 노조와 지자체, 학생회의 지지를 얻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차별과 제도적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운동의 번방을 벗어나 운동의 주류가 됐다.

그러나 BDS 운동이 성과를 거두자 만만찮은 반격도 시작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BDS를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BDS 운동을 꺾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 BDS를 공격하는 소송을 지원하고, 언론을 통해 비방 운동을 벌이고, BDS 지지자들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이콧 요구는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를 키우고 급진화시켰다

유대인 혐오와 시온주의 반대, 좌파

시온주의자들의 반격 중 최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시온주의 반대를 유대인 혐오와 등치시키는 비난이다.

이스라엘 옹호자들은 스스로를 “유대인 국가”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차별적 성격(비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곧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한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나라, 특히 동유럽 나라들에서 유대인 혐오가 실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유대인 증오를 퍼뜨리는 극우 정당들이 여러 나라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극우의 성장이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이어졌고, 트럼프의 당선 덕에 유대인을 혐오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나치들이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 자들이 트럼프 지지 기반의 일부인데도 시온주의의 우파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온주의자들은 좌파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고 서구에서는 일부 언론의 지원 사격을 누렸다.

영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가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이 큰 성공을 거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억압했을 뿐 아니라, 보수당 세력과 노동당 우파가 좌파인 제러미 코빈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공식 정치 전체를 우경화시키는 핵심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유대인 혐오라고 공격한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집회가 처음 열렸을 때 그 집회를 유대인 혐오라고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려 했다.(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선 탓에 이를 실제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그 뒤에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진보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의 문구(“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가

▶ 13면으로 이어짐



서평 |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 개악과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등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좌파의 일부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신간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헤인 데 하스 지음, 세종서적, 2024)은 이주민을 환영하고 이주민의 조건 개선과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유용한 통찰과 풍부한 통계·역사적 사례를 담고 있다.

저자 헤인 데 하스는 현재 암스테르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30년 넘게 이주 문제를 연구해 왔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옥스퍼드대학교 국제이주연구소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 소장으로서 활동했다.

저자는 이주가 사상 최고치이며 도착국 사회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 “침략”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 인구 대비 국제 이주자 비율은 대략 3퍼센트 내외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왔음을 통계로 보여 준다.

공동의 이익

바뀐 게 있다면 이주의 방향이다. 과거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주해 간 반면,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노동력을 모집하면서 이주 목적국이 됐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이주가 사상 최고치라는 오해가 “유럽 중심적 세계관”이며, “비서구 유색 인종의 이입을 특히 문제시하지만, 과거 유럽인의 이입과 이출에는 눈을 감는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고마운 존재다. 2010년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리를 훔치고 임금을 낮춘다는 주장도 분명하게 반대한다.

“정치인들은 … 이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암시해 토박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이간하려 든다. 토박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것이다. 불평등 심화나 일자리 안정성 저하, 임금 정제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이주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다.”(강조는 저자)

저자는 이를 방대한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해 뒷받침한다. 1980년 쿠바인 난민 유입으로 미국의 마이애미 노동력이 갑자기 7퍼센트 증가한 사례 등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한 여러 사례에서도 일자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

저자는 국경 통제가 이주민 유입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점도 보여 준다. 또한 노골적으로 이주민을 적대한 트럼프조차 국경 통제는 강화했어도 실제 사업장을 단속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일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들의 필요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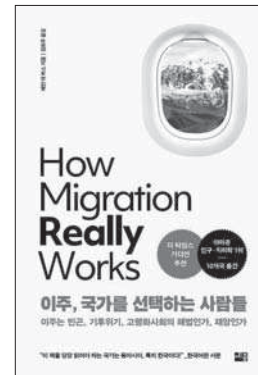
이런 현실은 노조와 좌파 일부가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유입·고용을 막는 것은 공상이며, 이들을 환영하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가난한 사람들이 글로벌 노스를 향해 위험한 여정에 나설 필요가 없이 고향에 머물도록 도와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대목은 특히 흥미롭다. 저자에 따르면 서구의 많은 정부가 이주민이 자국에 오면 노동시장 밑바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면 이주를 만류하는 캠페인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합리적 선택

이 대목은 최근 한국의 일부 좌파와 노조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열악한 조건으로 고통받는 것을 반대한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이주노동자 유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민족주의를 교활하게 정당화하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463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저자는 이런 주장이 “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라는 투로 거들먹거리는 태도일 뿐”이라며 “이주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실제 스스로 판단한다”고 꼬집는다. 이주에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향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나은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주한다는 것이다. “이주자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헤인 데 하스 지음, 김희주 옮김, 세종서적, 512쪽, 25,000원

망을 품고 수년간 힘든 일과 외로움을 기꺼이 감내한다. 이주자들이 이주 초반에 송금하는 돈은 식량과 옷을 구매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집을 짓는 등 시급한 용도로 사용된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가 이주민을 결국 고국으로 보내려는 목적하에 자신의 문화, 언어, 종교를 지키도록 독려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해 보인다.

다문화주의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었고 이를 놓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좌파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요한 측면에서는 분명 진일보한 개념이었다. 다문화주의는 이주민 공동체들이 이른바 우월한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옹호하려는 것이 핵심 취지다. 특히, 무슬림 문화가 서구 문명보다 열등하다는 이슬람 혐오가 인종차별의 최신 형태인 상황에서, 우파가 이주민을 배척하려고 다문화주의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다문화주의를 방어해야 한다.

500쪽이 넘는 분량이지만 대중서를 목적으로 쓰여져 읽기에 어렵지 않다. 이 책은 이주민을 환영하기 위한 주장을 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임준형

▶ 12면에서 이어짐

“이스라엘인에 대한 인종 학살”을 부추기는 “심각한 증오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

에게 자행하는 인종차별적 폭력에 반대하는 것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비유대인들을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권리”라는 관념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유대인 증오를 퍼뜨리려 하거나, 유대인들에게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점령의 책임을 물으려는 사

람들에게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그 형태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인종차별에 반대해야 하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핵심적 일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 치시민회의가 결성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 명단이 17일 확정됐다.

명단과 명단 확정 과정은 좌파가 더 불어민주연합 같은 초계급적 국민 연합(역사적 용어로 인민전선)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 준다.

앞 순번에 들어야 할 후보들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아예 공천에서 탈락해 버렸다.

전지예, 정영이, 장진숙, 임태훈 후보가 그들이다. 자진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두 후보는 금융 소비자 운동과 농민회 활동 경력으로 국민 후보에 선정됐는데, 민주당 안팎의 우파는 한미연합훈련, 경북 상주 사드 배치 반대 등 미국 제국주의 반대 활동을 문제삼았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문제가 됐다. 민주당 측은 평화주의 신념을 지키려고 징역형을 감수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권력자 자녀들의 병역 기피와 똑같이 취급하며 그와 평화주의 활동가들을 모욕했다.

임 후보는 군의문사 해결에 앞장서 왔고, 박근혜 퇴진 운동에 대한 군부의 계엄령 검토 사실을 폭로했으며, 지난해 수해 지원 과정에서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에도 앞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명단은 계급협조적·좌우합작 선거연합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냈다

장서 왔다.

최종 단계에선, 진보당 내 비례후보 경선에서 1위를 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된 장진숙 후보가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전력을 이유로 탈락했다. 진보당 측은 다른 후보를 긴급하게 전략 후보 형식으로 추천했다.

결국 탈락한 후보 면면을 보면, 국가안보 문제에서 민주당 안팎 우파의 강경한 비방 공세를 배경으로 민주당이 압력을 가해 배제한 것이다. 안보 논리는 지배계급의 지정학에 대한 반대를 내부의 적으로 취급하며 정치적 억압을 정당화한다.

민주당은 선거에선 국힘에 이기고 싶어 하지만, 한미동맹 반대나 군부 비리 폭로 등을 해 온 후보들을 제외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익에 해를 끼칠 생각은 없음을 입증하려 하는 것이다.

진보당의 침묵과 타협

이런 배제는 레드라인으로 작용해 지배계급이 경계하는 일, 즉 자민통계 활동가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장벽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양보와 후퇴가 반복되면 우파의 자신감은 더 오르기 마련이다.

진보당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비판 목소리는 냈지만, “단결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고 덧붙여 운신의 폭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심지어 규칙도 바꿔 자당 장진숙 후보의 교체 요구를 수용했다. 반윤석열 국민 연합 유지와 의회 진출이라는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일 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것과 국회에 진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으로 하려는 활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진보당 측은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일본의 서방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에 빠뜨릴지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민주당의 우경적 압력에 침묵하고 타협하면 당선 후에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타협은 반제국주의적 활동가들에게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려면 좌파적 주장을 꺼려야 한다는 압력을 조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명단은 계급협조적·좌우합작 선거연합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진보당의 군색함은 좌파가 계급 연합, 좌우합작에 목맴수록 오히려 절충과 타협으로 기울 것임을 보여 준다.

진보당이 울산 동구에서 맺은 이중 합의도 문제다. 울산 동구에서 진보당은 녹색정의당·노동당과 함께 노동당 이장우 후보로 단일화하는 데 동참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와 함께 진보당은 민주당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지지하기로 했다.

주로 이 배신 때문에 범PD계 민주노동 운동가들이 진보당을 민주노동의 정치적 지지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운동까지 벌인 것 아닐까? 비록 그런 요구가 지나쳤지만 말이다.

진보당 하는 짓이 궤죄죄해도 개혁주의적 노동자 정당이라는 그 당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대의원대회에서 진보당 지지 철회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필요했다.(이와 관련해서는 본지에 실린 ‘민주노동 일각의 진보당 총선 지지 대상 배제 운동을 지지할 수 없다’ 기사를 보시오.)

진보당의 사회적 기반 때문에 혁명적 좌파는 진보당에도(녹색정의당 등 외에도) 투표할 수 있다.(그에 따라 불가피하게도, 진보당이 포함된 더불어민주연합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진보당·민주연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말이다.

중요한 것은 광범한 노동 대중의 자신감과 사기를 높여 그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라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뜻하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당 지지도는 4~5퍼센트 수준이지만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선 15~25퍼센트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이 온건 보수층을 붙잡으려고 탈당해 만든 '새로운미래'의 초라한 처지와 비교하면, 진정한 개혁 염원 정서가 와해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정서를 선명하게 반영하고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반대'를 내세우는 것이다. "3년도 길다"는 슬로건을 내걸어 윤석열 탄핵 추진 의지도 시사했다.

제1호 법안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했다(김건희 비난자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패소 유도 의혹, 한동훈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조국 대표는 자신이 단지 민주당 지지표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 아니며 자기 당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3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 한국여성대회와 3월 16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에도 당 간부들과 함께 참가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없음

조국 대표의 2019년 자녀 입시 비리와 검찰 무마 논란 등을 생각하면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 사안들의 진상과 무게에 비춰 보면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터무니없이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의 몇몇 위법 사실들을 중대 권력형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정부·여당이 한동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나 김건희 비리 의혹 등을 무마한 것과는 뚜렷이 비교된다.

그럼에도 조국의 계급 특권 옹호에 대한 청년층의 실망과 분노는 정당하다. 당시 본지의 비판은 조 대표가 단지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부화뇌동한 것이 아니었다.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계급 특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는 학벌과 계급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충격을 줬다. 입시 경쟁, 학벌주의, 취업 경쟁에 찌들린 청년 세대는 커다란 실망과 환멸을 느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약속에 가장 기대를 건 집단이었다.

조국혁신당이 약진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 지지율은 극히 낮다.

특히, 조국 본인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자신을 "사회주의자"(실제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을 뜻한다)라고 했으니 더더욱 위선과 배신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러다가 검찰·경찰을 이용한 윤석열 정부의 정적 탄압이 전개되면서 조국 대표에게 재할의 기회가 온 것이다.

조국 대표는 창당 과정에서 자신의 말과 실천이 달랐음을 사과했다. 그러나 계급 특권 행사 문제는 아니었다.

그가 해야 할 사과·반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을 인정하고, 그의 당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친노동계급적인 안을 내놓고 진지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실상은 자유주의

조국혁신당 간부층의 구성을 보면, 그렇게 실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업인, 교수 등 전문직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이끌어 온 촛불행동의 공동대표가 두 명(시민운동가들)이나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로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3월 18일 발표한 비례후보 명단을 보면 10번 안에 조국 본인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관료 출신자가 7명이다. 조국 본인은 비례 10번까지 당선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후보 전체를 봐도 관료 출신자 외에

여성 기업인 출신자들이 눈에 띄는 반면, 노동운동·사회운동 출신자는 한 명도 없다.

간부층의 인적 구성만이 조국혁신당의 자유주의적 본질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강령에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 이 당의 강령이 강조하는 '민생경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회복을 의미한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촉진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처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등 자유민주주의적 차원에서는 급진적인 면도 있지만, 인적 구성과 정강·정책 모두에서 현재 노동계급 등 서민들의 삶에 절실한 사회경제적 개혁에는 진지한 관심이 없다.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지지할 만한 정당은 아닌 것이다.

민주당이 반윤석열만 말하고 생계비 위기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서는 전혀 진지하지 않아서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이다 소 마땅잖아 하는 상황을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들이 투쟁으로 파고들지 못하자 조국혁신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듯하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국혁신당 지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우리는 조국혁신당을 찍지 말라고까지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를 넘어 전망해 보면 노동자들은 그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을 건설하는 데 스스로 보탬이 될 수 있다.

김문성

▶ 16면에서 이어짐

급의 일부인 전공의는 물론이고, 중간 계급의 일부인 소규모 개원의와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들은 그동안 의대 증원에 대해 전공의나 개원의와는 다소 다른 태도를 취해 왔다.

병원 경영진인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노동자 의사들이 많아지는 게 자본가로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긴다. 그들의 협의체인 병원협회는 의대 증원을 일괄되게 요구해 왔다.

빅5 병원만 해도 전체 의사 인력의 40퍼센트가량을 전공의로 채워 비용을 절약해 왔다. 현재 수도권에만

6000명상 이상의 분원을 추가로 짓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더 많은 의사가 배출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총선을 노린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병원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도 커 보인다. 지금대로라면, 늘어난 의사 인력의 상당수는 장차 이쪽으로 흡수될 듯하다.

자제력

중간 관리자 구실을 하는 교수들의 경우 소득과 명예는 물론이고 정년이 보장되지만, 대개 퇴직 전후로 개원을 한다.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도 풍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장 경쟁의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도 대규모 증원에는 반대한다.

막무가내인 전공의와 달리 의대 교수들은 사회적 시선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기형적인 의료 환경의 작은 희생자이자 어쩌면 방관자인 저희의 자기 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감수하라는 얘기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률이 크게 떨어

어지지 않고 있다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출산을 앞둔 산모, 항암치료 일정이 미뤄진 환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뇌혈관 질환을 수술해야 하는 환자, 휴가를 내고 어렵사리 대학병원 수술 예약을 잡았다가 미뤄져 곤란하게 된 환자 등.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료 현장이 차분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이유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의 압도 다수가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선 현장의 구급대원들은 평소보다 119 신고가 크게 줄었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전하기도 했다.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예고 의대 증원이 필수의로 대책 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당장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병원 사업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회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예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슬쩍 물러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3월 18일 윤석열은 전공의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일선 병원 현장을 찾아 교수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도 답했다.

면허 정지

그러나 정작 그동안 명분으로 내세워온 '필수의로 강화' 대책은 전혀 부실하다.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수가 체계 개편 등으로 필수의로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놔다.

하지만 이 10조 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퍼센트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필수분야'에 10조 원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형병원 이윤을 걱정할 뿐 서민층 위한 개혁은 부실하다

추가 지출한다면 그만큼 다른 분야의 보장성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이 줄어드는 다른 분야가 피부 미용이나 성형 등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이런 의료 행위는 이미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지출을 늘리는 대신 감염내과와 정신과에서 지출을 줄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도권에 추가되는 대학병원들은 지역의료 강화와 거리가 멀고, 민간 병원으로서 적자를 감수하며 필수의를 유지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들의 상당수도 개원 등 시장 의료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심장 수술을 해야 할 흉부외과 전문의가 흉부외과 진료를 계속

하려면, 중앙·지방 정부가 직접 병원을 짓고 '착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시장에 맡겨두는 한은 수가 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당장에 이런 공공 병원에서 의사들을 일하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일정한 타협(장려책과 우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의료 시장화에

제동을 걸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의사가 되려는 청년들이 개인적 투자와 희생에 대한 보상에 덜 매달리도록 교육·수련 제도로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화된 의료 시스템에 2000명을 내맡길 것이 아니라 200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10개 신설하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졸업 후 일할 잘 갖춰진 공공병원을 짓고,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의를 수천 명 채용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대중의 목소리에 민감한 의사 수만 명을 몇 년 안에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부에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운동이 더 꾸준히 벌어지고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

의사와 계급

전공의에 이어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이 곧 진료 거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길어야 한 달 안에 진료가 중단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는 전국에 1만 명가량으로, 진료와 수술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관리자로서의 업무도 한다. 일부는 병원 경영진으로 자본가 계급의 일부다. 이들은 노동계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여성과 이슬람

온라인 토론회
LIVE





발제 탈라트 아흐메드
인도계 영국인 마르크스주의자, 에든버러대학교 남아시아역사 부교수,
'인종차별에 맞서자' 스코틀랜드지부 소집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

온라인 토론회 영상을 채널에서 시청하세요! [3월 20일 공개]